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전환기 동아시아 인식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학술회의

후쿠자와 유키치, 요시다 시게루 그리고 시진핑

좋은 물음(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회장 강상규 방송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대학로 방송대 대학본부 3층 소강당에서 진행한 학술회의가 여기에 딱 맞는 학술대회였다. 주제는 '전환기 동아시아 인식에 관한 비판적 성찰'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제1부 '문명기존의 역전'과 동아시아 인식 지평의 변화, 제2부 '전후' 그리고 '21세기'의 동아시아를 보는 눈, 제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사회 최연식·연세대)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와 대만」(노병호·한국외대), 「순문의 동아시아 인식: 대아시아주의에 대한 재고」(이한결·연세대), 「안재홍의 동아시아 인식」(윤대식·한국외대) 등 3편의 논문이 소개됐다. 토론에는 김현(연세대), 이해경(서울대), 이경미(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참여했다.

2부(사회 김영수 영남대)에서는 「요시다 시게루의 동아시아 인식」(김송배·부경대)과 「시진핑의 동아시아 인식—일대일로외의 지배서사: 천하주의, 대일통, 지정학」(조경란·연세대)이 논의의 장에 올랐다. 토론에는 강여린(동국대), 신봉수(고려대)가 참여했다.

3부 종합토론은 이택휘 서울고대 명예총장의 사회로 발표자, 토론자 및 학술회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전환기 동아시아 인식과 그 이후

강상규 회장은 학술회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전환기 동아시아가 고비에 섰을 때 한·중·일 삼국의 핵심 인물들은 과연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길을 찾아갔을까? 그들은 각기 어떤 결과와 마주하게 됐을까? 이번 학술대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했다"라고 부연했다.

강상규 회장이 개회사에서 밝혔듯 '전환기 동아시아의 고비'에 선 핵심 인물들의 상황 인식과 그 인식 결과는 10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효한 의미지평을 제공한다. 한·중·일 삼국의 현 정세가 대단히 복잡다단



사진 왼쪽부터 노병호(한국외대) 김송배(부경대) 조경란(연세대) 교수다.

사진=최익현

중국의 천하주의와 중화주의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중국

지식인 일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를 대상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자기중심성

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기객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사상지평에서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성의 고투를 엿보고, 이를 의미화하는 작업이야말로 현실적 해답을 찾아가는 실천적 학문의 질문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와 대만」, 「요시다 시게루의 동아시아 인식」, 「시진핑의 동아시아 인식」 등 3편의 논문에 주목할 수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와 대만」을 발표한 노병호는 “후쿠자와는 작지만, 다양하고, 복잡하고 긴 역사를 가진 대만은 보이지 않고, 중국·조선에 대한 ‘반개(半開)조차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야만, 그 중에서도 최악의 야만의 섬으로 대만을 응시하고 있다. 그 표현은 ‘만민(萬民)’ 그리고 여러 비하적 표현으로 격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민’을 압제하는 것은 정당화되며, 설사 앞에서는 복종하더라도 뒤에서 배신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추방과 살해를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후쿠자

와의 ‘참으로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노병호가 좀 더 주목하고자 한 것은 후쿠자와의 잔혹한 본성 이외에도 후쿠자와-마루야마 마사오로 이어지는 일본 근현대의 정치사상과 지식인, 학자의 변질 문제다. “요컨대 지식인들의 학문과 행태가 ‘계급적’으로 분리되고 괴리되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심지어 체제파로 투항하는 자들이 왜 정치학(사상) 학도에 많은가? 아니면 눈에 띄는가? 이에 대해 후쿠자와는 반면교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가 던진 화두다.

전후 일본과 현대 중국의 전략

학술회의 1부가 100여년 전의 동아시아 사상지평을 다뤘다면, 2부는 좀더 현재적인 소재와 주제를 천착했다. 재일 한국인 3세인 김송배는 일본의 외교관이자 정치가이며, 일본

의 제45·48~51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일본 역사상 장기 집권한 총리대신들 중의 한 명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를 소환해, 그가 전후(戰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취했던 일련의 행위들을 진단했다.

김송배에 따르면, 요시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일본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고민했던 인물이다. 예컨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북태평양 6국조약안」이란 다자적 안보 구상안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비군사 지역으로 만들어 일본 안보에 이용하는 것도 궁리했다.

그런데 요시다에게서 좀더 흥미로운 대목은 그가 ‘법리적 식민주의자로서의 한국 인식’을 보였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송배는 “요시다는 아시아에서 자유진영의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한일관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요시다는 한일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던 요인으로서 이승만 정권을 되돌아보며, ‘한국 통치가 조선 국민에게 고통만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결국 요시다는 한국에 대한 역사 인식이란 ‘오호려 일본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생 향상에 한 기여는 공평하게 평가해야 한다’라는 말에 집약된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국가로 부상될 수도 있다는 이승만 정권의 인식에 둔감했다”라고 지

적했다.

이어 조경란은 ‘일대일로외의 지배서사: 천하주의, 대일통, 지정학’이란 부제를 단 「시진핑의 동아시아 인식」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의 세계패권을 향한 ‘일대일로’의 서사를 짚으면서,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강국화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조경란은 “21세기 패권국가가 되는 데는 과학기술 기반의 하드파워가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프트파워다. 소프트파워의 중심에 신천하주의가 있다.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서방의 자본주의+민주주의 대(對) 중국의 마르크스-레닌주의+천하주의라는 대립구도를 천명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시진핑의 강국화전략이 역설적으로 정치 이외의 모든 부분을 위축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또 이런 ‘위축’의 직격탄이 중국 지식사회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중국 지식 전문가로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규모경제는 역설적으로 지성의 붕괴, 문명의 절멸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국 체제의 강국화전략은 정치 이외의 모든 부분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천하주의와 중화주의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중국 지식인 일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를 대상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기객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자기를 대상화하고 현단계 세계 지식의 구조를 재구성해 새로운 종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의 학문적 역량이다. 그러나 중국의 학문은 그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본다.”

중국의 경로가 이러하다면 한국 지식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한국은 중국의 큰 그림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경제·학계 등 다양한 트랙을 가동해 그들과 협력해야 하는 것은 협력하고, 모호하게 해야 할 것은 모호하게 하고,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익현 편집기획위원 editor@kyosu.net

글로벌 오디세이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 연구실장

이스라엘 텔아비브대에서 중동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국 이스라엘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Mamluks in the Modern Egyptian Mind: Changing the Memory of the Mamluks, 1919-1952』(Palgrave MacMillan, 2017)가 있다.



또 에르도안이다. 지난달 28일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케말 클르초다르울루 야권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거의 20년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독재를 해온 ‘21세기판 술탄’ 에르도안의 승리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란 복수정당이 선거를 통해 경쟁하는 의미의 민주주의는 있으나, 오히려 민주주의가 법치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형국을 말한다. 2023년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지수 평가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100점 만점에 32점을 얻어 비자유주의의 국가로 분류됐다. 요르단, 모로코, 레바논보다 낮은 점수다.

최근 몇년 새 튀르키예 화폐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튀르키예 국민은 물가상승률 70%를 체감하고 있다. 2021년 초 미국 달러 대비 7.4리라였던 환율이 12월에는 17.94리라까지 떨어졌다. 선거 이전 19리라 대에 머물다 대선이 끝난 후에 다시 폭락해 현재 23리라까지 내려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르도안은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경제회복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에 시중에 유

통되는 화폐를 줄인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도리어 “높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라고 역지를 부리고 있다. 금리를 내려 화폐 가치를 낮추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돼 수입이 줄고, 수출품 가격은 낮아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수출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늘어나고, 이는 곧 국내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에르도안은 금리 인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고, 이에 반발하는 관료는 가차 없이 경질했다. 그는 2019년 이후로 3년여 동안 중앙은행 총재를 3번 교체했다.

경제정책 실정이 명백한데도 튀르키예 국민은 왜 또 다시 에르도안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까. 2003년부터 총리와 대통령에 번갈아 오르며 집권해온 에르도안은 야권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리한 선거를 치렀다. 일단 현재 튀르키예 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이 많지 않다.

2016년 군부의 쿠데타 실패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156개 언론매체를 폐쇄했다. 튀르키예 언론 조합(TGS)은 당시 2천500명의 기자와 언론 종사자가 직장을 잃었다고 추산했다. 게다가 언론 정보 담당관은 기자 778명의 취재원 자격을 취소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CPI)는 많은 언론인이 수감된 것을 빔터 튀르키예를 세계에서 ‘가장 큰 언론인 수용소’로 묘사했다. 따라서 에르도안의 실정을 제대로 보도하는 국내 언론이 많지 않고 볼 수 있다.

에르도안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원대한 구호를 내걸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분쟁에 개입해 튀르키예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에르도안은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에 개입했고, 카타르와 군사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만들더니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오고 있다.

에르도안은 군수산업을 발전시켜 국방력을 강화하고



에르도안은 언론통제, 친난민 정책, 군수산업을 위시한 줄타기 외교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튀르키예의 비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21세기판 술탄’으로 등극했다. 사진=위키피디아

있다. 예컨대 튀르키예가 생산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레이저 유도 방식 바이라크타르 TB2 드론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이미 2016년 최소 13개 국가에 바이라크타르를 판매했고, 최근 UAE에도 수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도입을 원하고 있는 만큼 튀르키예 드론의 인기는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튀르

“경제정책 실정이 명백한데도 튀르키예 국민은 왜 또 다시 에르도안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까. 2003년부터 총리와 대통령에 번갈아 오르며 집권해온 에르도안은 야권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리한 선거를 치렀다.”

키에는 드론 생산공장을 건설해 우크라이나를 도왔지만, 러시아와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훌륭한 중립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튀르키예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자극하는 외교정책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친정부 언론을 통해 사실상 튀르키예 국민의 ‘국뽕을 자극하’는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 에르도안을 다시 한번 승리하게 했다. 에르도안의 친난민정책도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이란 난민 중 일부는 튀르키예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며, 그들은 아마도 에르도안에게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에르도안의 친이슬람 정책도 인구 99%가 무슬림인 튀르키예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다.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 에르도안의 미래를 마냥 장밋빛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중반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결합한 고유한 민주주의 모델로 정치학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튀르키예 정치는 이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기반한 독재 정치로 변질돼 ‘독재체제의 내구성’이라는 새로운 연구대상이 된 것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그간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한다.